

십자가로 연합

고린도전서 1:10-17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제 이름은 Vinh이고 월링턴 교회의 목사 중 한 명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17절을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제 딸들은 제가 수락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사진] 저의 임무는 횡단보도 안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웃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횡단보도 안내를 할 때는 비가 왔고, 처음으로 가족을 도와 길을 건너게 할 때 제 손에 들고 있던 멈춤 표시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부모님들에게 우회전을 하지 말라는 큰 표지판이 있지만, 일부 부모님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회전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서운 눈초리를 보냈고, 그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뒷좌석에 앉은 그들의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규칙은 지역 주민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관련된 사람은 우회전을 할 수 없었지만, 지역 주민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길을 건너도록 돕고, 동시에 주민들도 도왔습니다. 그 순간의 혼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날의 진정한 초점은 제가 횡단보도 안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모두를 하나로 연합시킨 것이 안전이라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할까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1. 연합을 향한 부르심 2. 연합의 어려움 3. 연합의 중심

지난 주에 레이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의 서론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이번 시리즈 제목은 '기초 - 처음부터'입니다. 그의 서신의 시작 부분은 그의 다른 서신들과 비슷하지만 10절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분열, 성찬, 다른 교인들을 법정에서 세우는 것, 영적 은사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약 10개의 다른 문제를 언급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교회의 순결함과 연합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서신, 편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연합을 향한 부르심.

성경 구절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권면'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쁜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싸우거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가족안에 불화도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아이들을 제게 불러 "너희 둘은 왜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니?" 혹은 "너희는 서로 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거니?"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침묵합니다. 아마도 저의 훌륭하고 지혜로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개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

기 때문에 나는 개가 싫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여느 좋은 부모 처럼 저도 “상관없어, 서로 진심으로 안아줘”라고 말합니다.

제 요점은 이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연합을 명령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선택된 소수의 사람 중 한명이라는 사실로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변화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와 온유와 겸손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권유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권면’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마음이다.

우리는 이것이 바울의 마음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한 다른 단어들, 즉, ‘너희’ 그리고 ‘형제들’, 이라는 단어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단수형으로 단어를 사용할 때도, 그는 복수형으로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형제들과 자매들로 가장 잘 이해됩니다.

이 두 단어에서 볼 때, 바울의 권면은 문제를 일으킨 개인이나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닌,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녀를 징계하거나 원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를 스포츠 팀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뛰어난 플레이로 게임에서 승리하는 순간이 있고, 개인의 나쁜 플레이로 게임에서 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든 지든 무승부이든 팀은 모든 과정에서 단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 한명의 선수가 모든 영광을 누리거나, 모든 비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같은 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떤 팀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사이에 분쟁이 없이",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는 구절을 밑줄 치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며 교회에 행동을 촉구합니다. 3개의 용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3개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는 “모두 같은 말을 하라”입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사람이 항상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 [사진] 우리 모두는 미국 입국을 위해 차를 타고 국경까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휘발유와 음식을 사기 위해 그곳에 가기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휘발유와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어느 국경을 통해 갈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로버츠, 피스 아치, 블레인, 린든, 수마스 중 어느 국경을 선택할까요? 어느 국경과 거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필수 사항에는 동의합니다.

저와 함께 10절로 돌아가서 “분쟁 division” 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분열”을 의미하는 “시키즘 schism”입니다. 이 단어는 티셔츠가 찢어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진] 누군가가 미리 찢어놓은 이 티셔츠를 5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찢어진 패션이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분열은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용어는 “연합 united”입니다. 여기 이 단어는 의학용어이며 회복을 의미 합니다. 부러진 뼈가 치유된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뼈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열된 교회는 깨어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요청한 것은 연합을 위한 것이지 확실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되고, 동일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 로라는 저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목사인 개빈 오틀런드(Gavin Ortlund)는 그의 책 “Finding the Right Hills to Die On”에서 (기독교 리더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문제로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며, 우리의 마음은 교만과 깊은 겸손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법과 통치 아래 연합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연합의 어려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와 우리가 윌링던(Willingdon)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를 알고자하는 여러분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동의할 수 있나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연합을 갈망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돈이 아닌 조화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했고 개인주의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으며, 그들은 그것이 연합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도덕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는 너무 혼란스런 상태여서, 고린도 밖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너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고린도교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11절로 돌아가면 “글로에”라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글로에뿐만 아니라 글로에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글로에는 비기독교인이었을 수 있고, 그녀의 사람들은 종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글로에의 종들이 고린도의 상황을 바울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귀에 들어갈 만큼 분열이 컸을 것입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 “분쟁”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논쟁이나 불일치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더 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IT 세계에서 사람들은 Microsoft, Apple, Google, Samsung 등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회사에 너무 충성적이어서 다른 회사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IT 회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를 비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경우이며, 바울이 우리에게 분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네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사람, 세련된 사람, 진지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의 순서는 그 자체로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파하였고, 그 뒤를 이어 아볼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라고도 하는 게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열은 교회 내에서 한 리더를 다른 리더보다 더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아볼로는 순회 설교자였으며 이 목록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설교자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원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리더들과 설교자들의 신앙생활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특정 설교자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너희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좋아해야 하며, 그리스도만 따르고 다른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리스트의 마지막 그룹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집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언급한 IT 회사의 예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세 그룹이 있지만, 그들 모두를 능가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 그럼 당신은 죽을수 밖에 없는 인간을 따르는군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라는 태도로 다가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리더가 다른 리더보다 더 좋아" 또는 "나는 이 설교자가 다른 설교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둘 다 상관없어, 나는 단지 예수님을 따를뿐이야."

[사진] 2002년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마지막 해였습니다. 매년 전문가들은 브라질 팀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이 팀은 우승하지 못할까요?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플레이를 하고, 팀워크가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브라질 분들, 저는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고린도교회도 이와 같았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다르게, 다른 은사로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교회가 주변의 그리스 사람들과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인들은 연설가, 말, 깊은 생각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사상과 영향력이 강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철학자들을 놓고 싸웠던 이유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사상가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트주의 정신이 세상에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3절에서 세 가지 수사적 질문을 던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다음 몇 절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상한 주제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세례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세례가 더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별로 없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연합이 세속적인 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는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도록 영향을 줍니다. 정치적 정당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는 자신이 따르는 정당이나 사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정당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알면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엔조차도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국가들을 연합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화는 우리 스스로에게 모든 사람을 연합시킬 힘이 있다고 믿도록 영향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타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여러분을 건강하게, 부유하게, 안전하게 해주겠다고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에 교만하지 말고, 그분이 주님이자 구세주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안에서, 경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은 이미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18세기 모라비아 교회의 주교였던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진첸도르프와 같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어서, 잊혀지십시오." -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진첸도르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입니다. 3. 연합의 중심

17절에 이르면 바울이 세례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위해 For"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목회자들이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레이 목사님이 세례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예수님께 모든것을 바쳐야 합니다.

"말의 지혜"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얼마나 뛰어난 웅변가였는지를 다시 언급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 사역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문장을 써 달라고 했고, 제가 해석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내 칼에 대한 농담이 스키비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 내 딸들에게 아우라를 되찾아 시그마로 돌아가야 할 지도 몰라.” 해석: “내 칼에 대한 농담이 재미없다고 생각했나봐. 딸들에게서 쿨한 점수를 되찾아서 다시 멋져야 할 것 같아.”

이것이 설교의 미래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과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바울 당시의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유창한 말은 사람들을 설교자에게 이끌었지 구원자에게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거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점은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함께 강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우리 자신에게로 이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한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24-25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연합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10절로 돌아가서 "으로 by", "이름 name",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Jesus Christ"라는 단어를 함께 강조해 보겠습니다. 분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때 발생합니다. 바울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구절에서 글로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바나 등 여러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연합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거나, 그분의 이름에서 떨어져 개별적으로 분리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아래 연합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로 간단히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7:9-12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만약 이 말씀을 처음 읽으신 거라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 아래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망쳤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교만해졌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솔직히 돌아본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되기 위해 그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 우리 교회안에서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분열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공동 증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2. 분열을 조장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실질적인 방법으로 연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3.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지혜나 언변이 십자가의 힘을 가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축도: 로마서 15:5-6